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 유물전시관 개관

임진왜란 의승(義僧) 활약상 한눈에



◇여수 흥국사는 4일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의승수군을 기리는 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 사진=주용직 광주지사장

임진왜란 당시 활동했던 의승 수군(義僧 水軍)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 여수 흥국사에 건립됐다. 여수 흥국사(주지 명선)는 4일 조계종

의승 수군 유물전시관에는 흥국사 패불(보물 제1331호), 흥국사 대웅전석가모니후불탱(보물 제578호), 흥국사 관음전관음탱(보물 제1332호), 흥국사 응진전 십육나한탱 6점(보물 제1333호) 등 흥국사 소장 보물 11점과 흥국사 보광전아미타후불탱, 대웅전 삼장탱 등 지방문화

지방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16억 4천여 만원을 들여 지난 2000년 5월 착공해 3년여에 걸쳐 완공했다. 지상 1층에는 의승 수군 유물을, 지상 2층과 지하1층에는 불교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흥국사는 1천여점에 달하는 유물들을 수시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이순신 친필 공복루 현판등 1천점 전시

“불교사와 문화 이해 교육장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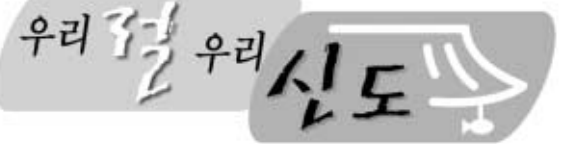
재가 전시된다.

이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친필인 공복루 현판, 수륙재 제문 등 의승 수군 관련 문서와 상량문 등 임진왜란 당시 의승 수군의 활약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유물이 선보이게 된다.

의승 수군 유물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50여평 규모로, 국비와

흥국사 주지 명선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도란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의승 수군이 머물렀던 흥국사에 전시관을 건립하게 돼 기쁘다”며 “유물 전시관을 찾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유물을 통해 불교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문화의 장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365일 염불삼매, 자비행 밀거름

대구 금강삼매원 금강회 다섯 보살

“이른 아침 반듯이 좌정하고 앉아서 금강삼매경 독경을 하면 마음이 맑아져 하루가 편안합니다”

대구시 달성동 금강삼매원 금강회 총무 이수경 보살(42)은 이른 새벽, 가족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 방 한 칸에 모신 다라니 앞에서 금강삼매경을 독송한 후 하루를 시작한다.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 보낸 이보살은 잠시 쉴 틈도 없이 금강삼매원 법당을 찾아 경전을 독경하며 염불삼매에 빠진다.

칠곡군의 집에서부터 대구시내 법당까지 1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지만 여간해서는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매일같이 금강삼매원 법당에 출근하는 신도는 모두 다섯 명의 금강회 회원들. 이들은 금강삼매원 신도회의 주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일찍부터 금강삼매원 법당에서 매일 같이 독경하는 금강회 다섯 보살들은 “집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법당에서 여러 도반들과 같이 일심으로 금강삼매경을 독경하면 환희심이 절로 난다”고 말한다.

법당에서 금강삼매경을 독송한 금강회 회원들은 절 안팎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등 절

일을 집안일처럼 돌보면서 소소한 데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

더구나 법회가 있는 날이면 다른 신도들의 법회준비도 금강회 보살들 몫이다. 법당 청소, 공양준비는 물론 불자들이 법회를 마치고 돌아간 후야 법당에 모여 기도할 정도로 다른 신도들 뒷바라지를 수행의 연장으로 여긴다.

금강회 보살들은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강회 회원들은 한 달에 2~3차례 떡, 과일 등 음식을 싸들고 양로원과 고아원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선사화가이기도 한 주지 성호스님이 법당에서 무료 사군자 문화강좌를 열고, 행편이 어려운 이웃 노인들을 위한 무료 49재를 봉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든든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10여 년 전 금강삼매원 신도가 되었다는 금강회 총무 이수경보살은 “주지스님께서 발원한 부처님 법의 사회적 실천인 사회복지 불사의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구기자

법당 청소, 공양준비, 자비행은 수행 연장

사회복지 불사 서원 이뤄지도록 힘 보태고 싶어



◇이수경보살(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금강회 다섯보살은 매일 금강삼매원에서 염불삼매에 빠진다.



추천의말 성호스님 금강삼매원 주지

총무 이수경보살을 비롯한 금강회 다섯 보살들은 우리 금강삼매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배같은 존재들입니다. 금강회 보살들은 항상 다른 신도들 보다 앞

정진·보시 등 초심 잃지않는 신행

서서 절 살림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절에 처음 오는 신도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 절하는 법에서부터 참선, 금강삼매경을 독경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줄 정도로 정성입니다. 보살들의 한결같은 정진과 자비행은 금강삼매원 성장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보덕학회 설립 10주년 맞아

불교학 연찬, 포교사업 지원에 앞장

행사비용 포교지원 사업에 사용키로

불교학 연찬과 포교사업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를 후원해온 (재)보덕학회(普德學會)가 3월 30일 10주년을 맞았다.

보덕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을 제외한 기념행사를 취소했다. 이사회는 재단의 설립이념에 맞게 기념행사 비용을 모두 불교계 포교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1993년 3월 30일 설립한 보덕학회는 그동안 동국대경원의 팔만대장경 한글화 사업 지원에 비롯하여, 한국불교연구원의 고 이기영 박사의 평생 역작인 원호사상연구서 발간을 지원했다. 또 실

상사 화엄학립의 연구비, 서울의 전통사찰 발간, 수화서적 발간, 고행화 사회를 대비한 여성의 권익 옹호 사업, 육군사관학교 수련관, 승가대학 비구니 교육관, 소적새 마을 시설비, 불교단체의 청소년 수련대회 지원 및 보조사업을 펼쳐왔다.

재단법인 보덕학회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우리나라 대표적 중소기업인 유성기업 유홍우 회장이 1993년 회사창립 50년을 맞아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실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교지원 재단인 '보덕학회'를 설립했다.

김원우기자

용주사 지역문화 구심체로

‘효행 본찰’ 용주사(주지 정락)가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거듭난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세계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화성시와 함께 가칭 ‘제1회 용주사 효문화 축제’를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용주사 효문화 축제’는 승무와 영산

재 등의 불교문화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행사인 ‘승무제’와 경로잔치인 ‘백수제’, 불교음악 위주의 ‘산사음악회’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승무제’는 용주사에서 수개월간 머물며 공부했던 고(故)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에서 따온 이름이다.

효문화 축제를 준비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은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효’ 사

상과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입으로써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대구지하철 희생자 49재 봉행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두백)는 7일 대웅전에서 대구지하철 희생자 유가족들과 40개 사찰 주지스님, 신도들이 참

했다.

대한적십자사 환경정의시민연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한민족도보대행진은 선승 원공스님과 불자장성 전인구 예비역 준장이 남북이산가족상봉기원,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모금(02-3705-3657~9), 해안환경보호를 위해 7월 7일까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금강산, 휴전선 구간 등 100일간 총 3,000km를 도보 행진하는 행사이다. 행진단은 4일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를 지나고 있다. 도보대행진 행사일정 및 구간별 현황은 홈페이지 (peacekorea2003.com)를 통해 자세히 소개된다.

김원우기자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에 <대이령 <조상령 <빙의령 <속생령 <구명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4월 2째주, 4째주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파동명상으로 해결하다.

◆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영적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 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